

AI컴퓨팅센터 유치 무산...광주 지역사회 대안 요구 '붓물'

각계 “실망감 커...대선 공약 이행을”
국회의원들 “정부·與, 책임갖고 지원”
姜시장, 정청래 대표 만나 재고 요청
“‘공공의 AI’ 실현 꿈 결코 포기 안할 것”
이병훈 “국가 차원 충분한 대책 필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로 광주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여당을 향해 대통령 공약 이행과 지역 AI 산업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3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성명서 전달은 전날 오후 8시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미래산업 비상회의’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강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정지성 인공지능산학연합회장,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성명서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5개 자치구 구청장,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 등 8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긴밀히 논의해 온 기업(삼성SDS)이 이번 공모에서 다른 지역을 선택해 광주시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제1호 공약이자 국가 AI 경쟁력 확보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광주시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李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국 최고 투표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켰고 17만829명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위한 열망을 보여줬다”며 “이 공약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산업 전략이며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이 눈앞의 경제성만을 앞세워 방향을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AI 3강으로 도약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태·박군택·안도걸·양부남

·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공약 정신을 실질로 완성할 수 있도록 AI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과 확실한 이행 약속을 광주시민 앞에 밝혀 달라”며 “광주시가 AI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국가AI데이터센터의 단계적 업그레이드와 확장 ▲국가AI연구소

(가칭) 광주 설립 ▲AI반도체 실증센터 조성 ▲광주 모빌리티 도시 지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이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유력시 된 것은 호남 차원에서는 축하할 일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광주시민들의 상실감이 큰 만큼 국가 차원에서 광주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는 전남 삼성SDS 컨소시엄 측이 전남을 국가 공모 입지로 택하면서 응모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자 지역 각계각층 대표들과 비

상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불법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도시가 바로 광주인데 또 다시 약속이 뒤집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는 국가 신뢰와 정책 공정성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광주시는 삼성SDS와 30여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이달 초에는 첨단3지구 일대 현장 실사까지 마쳤다.

광주시는 부지 가격을 복합용지(㎡당 500~700만원)에서 산업용지로 전환해 ㎡당 200만원 수준으로 낮춰 제공하고 RE100 산단 요금 적용을 위한 특례 입법, 최대 1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지원금 등을 약속하는 등 과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나 결국 삼성SDS는 경제성을 이유로 전답을 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유치 실패로 인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AI 꿈은 멈출 수 없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광주가 추구하는 AI산업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AI’이며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수·변은진 기자

Today
남도인물열전
이항과사단칠정 논쟁
광주 출신 ‘고봉기대승’
14면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 전남엔 고작 0.6%

의료수요 높음에도 국가연구개발 배제
지역 의료 역량 격차 고착화 원인 지적
이재호 “수도권 집중지역 소외 악순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이 심각한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중을 넘어 지역 의료 역량과 산업 기반의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10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은 총 3조2천33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49.2%)과 경기(19.2%) 등 수도권

이 71%를 차지한 반면, 전남은 0.6%인 190억원에 불과했다.

의료 수요가 높고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이 이처럼 낮은 R&D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지역 불균형 사례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의료 수요가 높은 전남이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건강 형평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전남은 의료 접근성과 인력 기반 모두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다.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52%로 전국 평균(19.9%)의 2배를 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로 시·도 평균(74.2%)에 미치지 못한다. 공공보건의 인력도 2020년 637명에서 2025년 477명으로 18% 감소했으며, 노인 인구 비율은 27.2%로 전국 평균(20.0%)을 크게 상회한다.

이재호 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이 복지부 보건

의료 R&D 예산의 1%도 배정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지원 역전 현상’이라며 “단순한 행정적 불균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도권 중심 연구개발 구조는 연구 인프라·전문인력·산업연계 등 모든 면에서 지방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며 “투자 부족이 다시 연구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의료 R&D는 단순한 연구 지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지역균형발전, 산업 생태계 형성에 직결되는 전략적 공공투자”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균형 R&D 전략과 맞춤형 위탁사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수 기자

‘2025 국제농업박람회’ 오늘 팡파르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슬로건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나주에서 개최된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대주제 아래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이라는 슬로건으로 25개 국가 38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관련기사5면

기후 위기, 식량 안보 등 인류적 과제 속 농업이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 해법과 미래 청사진을 선보이는 장이 될 전

망이다. 박람회는 관람객이 농업의 무한한 가치를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상생마당전, 농업미래전, 농업산업전, 비즈니스전, 힐링치유전 등 5개 주제의 ‘마당(田)’으로 구성됐다.

‘상생마당전’에서는 어린이·직업 체험관, 청년창업농마켓, 전남 농산물 패션쇼, 월드 새참 콘테스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농업미래전’은 박람회의 심장부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끄는 미래 농

업을 체험할 수 있다.

‘농업산업전’은 최신 농기계와 스마트팜 기술, 농자재 전시·판매 부스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 기술과 정보를 교류한다.

‘비즈니스전’은 16개 국가 50여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월드푸드테크 포럼, 국제 커피 심포지엄 등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힐링치유전’에선 풍요의 정원, 아열대 식물원, 고구마·감 수확 체험, 케이(K)-커피 홍보관, 반려문화놀이터 등 자연 속 휴식과 오감 체험을 제공한다. /김재정 기자

2025 전남세계 김밥페스티벌
청정 전남해역 안전한 수산물
2025. 10. 24(금) - 10. 26(일)
목포시 일원(문화예술회관 등)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內

전라남도 OK! Now Jeonnam
캐치! 티니핑 싱어롱쇼 개막축하공연
2025. 10. 24 14:30~15:00
PERFORMANCE